

대구주보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연중 제14주일)
2012.7.8.(나해) | 제1789호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전퇴진, 브론즈, 1977년. 충남 당진군 솔외 성지>

금주의 성화

김대건 신부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유년기를 보내셨던 충청남도 솔외 성지에는 신부님의 동상이 서 있다. 신부님께서는 왼손에 성경을 들고 계시며 오른손은 축복하시는 듯하다. 큰 갓과 도포를 입으신 위에 영대를 하고 계신 신부님의 얼굴은 수염이 없고 매우 젊은 모습이다. 신부님의 뒤에 서 있는 탑처럼 생긴 흰 조형물은 보호자이신 성모님을 상징하며, 멀리서 보면 마치 성모님께서 김대건 신부님을 품에 그느르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

† 오늘의 전례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마태 10,17-22 참조)**

사람마다 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물이 귀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 소중합니다. 가족을 위해 명예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예를 위해 가정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중하게 여기는 것을 모두 버리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1독서 2역대 24,18-22 제2독서 로마 5,1-5 복음 마태 10,17-22

화답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7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공공질서를 지킵시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신부님



정재성 요한 신부 | 청도성당 주임

유학시절 때 이 날이 되면 늘 제가 미사주례를 맡았는데, 저는 김대건 성인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유년기에 단정하고 고상했으며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 신부님의 스승 신부님들은, 김대건 신학생이 신학교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화가가 되었으리라 했고, 음악교수님은 음악가가 되었으리라 말할 만큼 김 신부님은 다재다능했습니다. 하지만 김 신부님의 유년시절에 그분의 다재다능함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 천주교 최초의 서양사제 모방 신부님은 공소방문을 하던 중에 김대건 소년을 처음 만났고 3명의 신학생, 최양업, 최방제, 김대건 소년을 차례로 선발했는데, 그들 중에서 김대건은 나이도 더 어리고 몸도 약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모방 신부님과 함께 살면서 라틴어를 공부한 후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정하상과 조신철의 안내를 받고 중국인 유방제 신부가 귀국할 때 그를 따라 중국으로 갔고, 마카오의 르그레주아 신부와 리부아 신부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1845년 8월 17일, 중국 금가항 성당에서 조선의 3대 교구장 페레올 주교님한테 사제서품을 받아, 한국인 최초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가항 성당은 안타깝게도 아파트 건축 때문에 소실되었습니다. 김 신부님은 사제서품 후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를 모시

고, 익산 나바위에 도착한 후에 사목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주에서 기다리던 메스프르 신부 일행을 입국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 김 신부님은 1846년 6월 5일 밤 순위도에서 체포되어 40여 회나 문초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김 신부님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 외교관으로 활동하게 하려고 했지만, 김 신부님은 천주교를 혹독히 박해하며 임금의 명령으로 배교하라고 독촉하는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신부님은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으셨는데, 교우들은 희망이에게 돈을 쥐서 단칼에 내려쳐달라고 부탁했지만 여덟 번 내려친 후에야 겨우 목이 끊어져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138년 뒤인 1984년 5월 6일, 김 신부님은 다른 102명의 복자들과 함께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성식 직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특별한 인가로, 김해 김씨 가문 중에서 김대건 성인공파가 생겼습니다. 교회역사상 전무후무한 경우입니다. 오늘날, 김 신부님의 흔적이 담긴 곳 모두 성지가 되었습니다. 탄생지는 솔피 성지, 유학 전까지 사신 곳은 골배마실 성지, 사제서품 후 사목생활을 하신 곳은 나바위 성지, 그리고 순교하신 곳은 새남터 성지입니다. 오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 우리나라 교회와 사제들과 신학생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꿈을

윤종리 가브리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의 개념을 구체화시킨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베풀고 나눔 아니겠는가?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고 도와주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나는 이런 구절을 만날 때마다 6.25전쟁 때 피란 가던 일이 생각난다. 땅굴을 파고 숨어서 곳곳에 포탄이 떨어져 집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가족은 드디어 50여 리 떨어진 산골 동네 외가로 피란행을 결정했다. 내 밑으로 동생이 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짐을 이고지고, 누님은 동생을 업고, 피란행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 가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우리는 길가의 나무 아래 앉아서 식사를 했다. 손으로 문쳐서 삼베 수건에 싼 주먹밥 한 개씩. 그것도 동생들 몫은 따로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조차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었다. 가까운 곳에 앉아서 쉬고 있는 낯선 가족 한 무리가 점심 준비를 못한 모양으로 부러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주먹밥 한 개를 그 가족에게 건네고 나서야 식사를 했다.

전쟁 때는 밥이 없어서 굶기를 자주 했다는 얘기를 아이들에게 하면,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일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은 물질적

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나누고 베풀고 도우는 것도 그렇게 풍요로워 졌는지는 의심스럽다. 도울 힘이 없는 경우도 있고 도울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울 마음부터가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 도시의 큰 본당과 시골의 작은 본당이 하나씩 자매본당 결연을 맺고 서로 돕고 나누는 방법. 내 생각에 이의를 달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교구만 하더라도 대구 시내의 규모가 큰 본당은 신자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반면에 시골의 작은 본당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동체의 삶을 꾸려가기가 힘들다. 여유 있는 본당에서 그들에게 매달 얼마씩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어 주기도 하고, 농번기에는 울력으로 일손 돕기도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농촌 본당에서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산지가격으로(그보다는 조금 더 비싸도 괜찮다. 시장가격보다 조금만 싸다면.) 도시의 자매본당에서 판매를 한다면 이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겠는가? 경제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가르치신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참으로 사람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가끔 이런 꿈을 꾸어 보기도 한다. 

7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신자라면 신자답게

공공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나라는 근세의 격동기에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와 전쟁과 가난의 질곡 가운데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기개와 어려움 속에서 먼저 희생하는 모습으로 많은 외교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진 오늘날, 이웃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오히려 줄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공공질서는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최소한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응답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신앙은 인격적인 행위이다. 즉,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6).

인간은 신앙을 통해서 온전히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하느님께 순종시킨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전체로,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동의를 드리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3).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마르 6,6)

예수님께서서는 고향 나자렛에서 몇몇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일까요? ‘믿음’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느님의 이러한 초대에 대한 인간의 응답 또는 동의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느님께 사랑의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혼자만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나(우리)와 하느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느님 사이에 참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믿음과 사랑의 관

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사랑의 순종을 드릴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느님을 복종시켜 기적을 일으키 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 즉 관계를 단절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원하는 현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동의하고 사랑의 순종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24권**

묵상해 봅시다.

나자렛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였듯이 일부 중고등학생들도 편견을 가지고 친구들을 배척(왕따)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거나 배척한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기억하고 하느님과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자원봉사를 통해 행복을 배우다

무료 이 · 미용자원봉사자 신정숙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웃과 남편의 권유였습니다. 미용기술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르신들의 머리를 감겨드리고 보조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에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첫 봉사를 가던 날, 이른 아침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차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 부모님의 머리를 감겨드린 적도 없던 제가 어르신들을 머리를 서툰 솜씨로 감겨드리고 퍼머룻트를 풀고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를 들으며 첫 자원봉사를 무사히 끝내고 봉사자들과 함께 차 한 잔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원봉사를 10년 가까이 해 오셨다는 얼굴도 마음도 예쁜 이은주 씨, 아침 8시 30분에 제일 먼저 도착해 봉사하시는 손미숙 씨, 구수한 사투리로 어르신들의 다정한 말벗이 되시는 정점옥 씨, 어르신들의 머리를 시원시원하게 잘 감겨드리는 최정순씨, 셋째를 임신하고도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이해영 씨... 모두 가정이 있고 직장을 다니는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봉사하고 계시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작지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짐을 한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머리를 감겨드리는 일에도, 퍼머룻트를 푸는 일에도 능숙해 졌고, 어르신들의 이름도 집안의 대소사도 다 파악하게 되었습



이 · 미용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모습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니다. 또 자원봉사자들과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사이가 되어 이제는 삶에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손길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작지만 그것이 모여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원봉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적은 돈이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하고자 복지관에 정기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는 특별한 재주나 많은 돈과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행복한 삶이 아닌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려는 마음과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행복을 얻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2012 사제 서품식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2012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 남산동 성김대건기념관에서 12명의 부제를 사제로 서품하셨다. 새 사제들은 새사제학교를 수료한 후 임지로 발령을 받게 된다.

2012 부제 서품식



2012년 부제 서품식이 6월 28일(목) 오전 10시 남산동 성김대건기념관에서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거행되어 13명의 새 부제가 탄생하였다.

아바도 어렸을 적엔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꽃동네 성소자 하계 수련대회

기간: 7.20(금) 17:00~22(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대상: 18세~35세 미혼 남녀
문의: (010)4220-2833

제34차 수도생활 체험 학교

기간: 7.26(목)~29(일)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생~만32세 이하 미혼남녀
문의: (010)8353-2323

대구가톨릭 여자수도원 성소상담

일시: 매월 첫째 토요일 17:00
대상: 20~30대 수도성소에 관심있는 여성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가능
문의: 622-4408
carmeldg@hanmail.net

분도명상의집 7월 시편 영성 피정

기간: 7.20(금) 16:00~22(일) 13:00
주제: 시편 명상

지도: 정학근(모세)신부 (새생명번역위원)
준비물: 성경책, 미사 책, 산책신발
문의: (051)582-4573 / (010)6650-4574

예수회 성소 피정 및 수련회

기간: 7.21~24(피정), 24~27(수련회)
장소: 충북 옥천, 수안보
대상: 대학생,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7197-7400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중고 캠프

기간: 7.24(화)~26(목), 경남 산청
문의: (010)9890-8809 (5만 원)

이해인 수녀님과 함께하는 해변휴가 피정 (부산)

기간: 7.30(월)~8.2(목) 3박 4일
주제: 바다의 선물
인원: 선착순 80명, 피정비: 18만 원
신청: 성분도은혜의집
(051)753-5744~5

8월 예수회 젊은이 피정

기간: 8.17(금) 17:00~19(일) 17:00
장소: 부산 은혜의 집

주제: 내 마음의 정원(꽃과 그림자)
대상: 35세 이하의 미혼남녀
신청: cafe.daum.net/YoungRetreat

인보성체수도회 성소자 땀땀모임

일시: 7.15(일) 14:00, 구미 인동성당
주제: 참된 제자로의 부르심
문의: (010)7550-1256

교육 | 모집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기본 1, 2단계

기간: 7.17(화) 11:00~19(목) 14:00
8.3(금) 11:00~5(일) 14:00
수강료: 14만 원
주최: 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도회
문의: 안젤로수사, (010)3664-3986

마신부님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기간: 7.22(일)~8.13(월)
초등: 기숙사, 중고: 홈스테이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골롬반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미사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9일(월) 오전 11시	주교좌 계산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9일(월) 오전 11시 30분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9일(월) 오전 11시	월성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7월 9일(월) 오전 10시	성건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9일(월) 오전 11시	신평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미사	7월 9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대구가톨릭생활성가협회 월례미사	7월 9일(월) 오후 7시 30분	삼덕성당
떼제미사	7월 14일(토) 오후 6시	삼덕성당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 치매조기진단
· 성인병, 5대암, 생애진단검진
· 어지럼증, 두통, 손발저림 진단 및 치료
MRI, CT 영상의학진단센터
- 신경과 전문의 4인 - 내과 전문의 2인
-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대표전화 053)652-2525 www.kinm.co.kr

미소인치과
원장 이 중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화, 목
야간진료

김동익 소아청소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야간진료, 일요일 진료
북구 관음동 칠곡 IC 서거리 옆 (한양수정아파트 상가 1층)
(053)323-6006
http://www.soagwa.net
원장, 전문의 : 김동익(요한)

칠곡 박 이비인후과
중이염, 축농증, 비염
이명, 난청, 보청기 상담
편도염, 인후염, 역류성질환, 성대질환
어지럼증 클리닉(달팽이관)
이비인후과 전문의/원장 박 규 욱(바오로)
동천동 주민센터 옆 파리바게트 2층
☎ 053)325-7577

원방한의원
통합진료 / 맞춤보약
각종 암수술/항암치료/방사선치료후
면역력 증강 및 원기회복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이 정 현(요셉)
전 대구가톨릭대학교수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2층

항점신앙유적지 쉼터
자연을 접하고 휴식과 영적충전을
얻을 수 있는 교구운영 쉼터!!
4인실부터 16인실까지 완비
예약 : cafe.daum.net/jeonhwasoo
문의 010-9889-3099

"2대째 30년 전통"
성심결혼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 전문직종 및 초혼 재혼 다량 확보 *
☎ 644-4007, 558-8003
비산대거리 서부초 옆 류성실(마리아)

행사 | 모임

노동자 미사

일시: 7.20(금) 19:0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강당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1

운전기사 사도회 월례회

일시: 7.11(수) 13:00

장소: 운전기사사도회 사무실

문의: 강청남, (016)520-8330

교육 | 모집

7월 가나강좌 안내

일시: 7.15(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마리아관

참가비: 2만원, 당일접수 (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2012 중등교원사도직협의회 여름연수

기간: 7.28(토) 17:00~29(일) 13: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청통수련원

주제: 교직, 막중하고도 아름다운 소명

대상: 각종 중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

문의: 학교복음화담당, 250-3067

더 나은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대구302차: 8.24(금) 19:00~26(일) 18:00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 사랑의 대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기간: 2차 8.26 출발 (8주, 12주)

3차 9.23 출발 (8주,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대상: 성인)

개강: 9월 초 (기초반 3개월 과정)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모집

교과부주관 대형국책사업 "3관왕"

2014년 개교 100주년의 전통

입학 후 취업까지 책임

수시 2,009명 모집 (63개 학과)

접수: 9.5(수)~11(화), 문의: 850-2580

오순절평화의마을 철야기도회

일시: 매주 화 11:00~16:00

버스운행: 현대미래물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김마리아, (010)5529-3186

청소년문학캠프 - 여름엠마우스

기간: 8.3(금)~5(일) 2박 3일

장소: 대구가톨릭대 기숙사 및 강의실

내용: 문학 강의, 백일장, 창작, 시낭송 등

회비: 3만 원, 7.22(일)까지. 종교무관

문의: 대구가톨릭문화회, (010)9493-7928

2012 슈발리에 축제 - 새하늘 새땅

기간: 8.10(금)~12(일), 강화피정의 집

대상: 20세이상 남, 녀 청년

참가비: 6만 원

문의: 예수성심전교수도회

(010)6258-6955

Show Bible : 제1회 아브라함

기간: 7.24~8.21(매주 화, 19:00~21:00)

장소: 대구바로로말서원, 회비: 2만원

대상: 말씀에 맛들이고픈 청년

문의: 양체사리아수녀, (010)2503-5185

• 성경의 인물을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

제7차 틴스타 국제회의 개최

기간: 8.12(일)~15(수), 의정부한마음수련원

8.14(화) 한국틴스타 전국교사모임

취지: 청소년 성교육의 전망 모색

대상: 한국틴스타 워크숍 수료자

문의: 한국틴스타 본부, (02)755-2629

채용

학교법인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채용

접수기간: 7.18(수)~20(금)

자세한 사항은 교구홈페이지 참조

<http://www.daegu-archdiocese.or.kr>

문의: 660-5161

성가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대상: 여 3명(자격증소지자), 마감: 7.11(수)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문의: (054)976-8122 (사회복지사 우대)

안내

제17차 농민주일 행사 안내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농업분과에서는

우리농촌살리기 운동의 발전을 모색하고

고자 안동교구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출발: 7.15(일) 8:00, 교구청 대건출판사 앞

견학: 가톨릭농민회관, 은혜분회 등

문의: 250-3051, 참가비: 1만 원

소중한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대연합내과의원

내시경·초음파·호흡기질환 전문
공단검진·각종 종합검진·예방접종
원장·전문의 이재욱(바오로)
(전 안동병원 내과과장)

☎ 475-3366 Fax. 475-3311
봉곡동 효성타운 효성스포츠크 1층

한수위! 천년의미소 미술학원

CHUN NYUN UI MISO ART INSTITUTE

중등부/고등부 입시전문
언제나 내자녀처럼 최선을 다해 가르쳐드립니다

명덕점 431-5005 수성점 741-3506
원장 이 해 록 (도미니코)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서 상 운 (안젤로)
송 정 애 (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서정희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허리 아프고 무릎 아를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승현역 2번 출구

Gong 공피부과

각종 피부질환, 아토피, 여드름 흉터
기미 레이저 클리닉 운영

T. 053-710-0710 피부과 전문의,
계명대 동산의료원 외래교수
필달신시장 옆 덕인빌딩 5층 원장
(주차장 완비) 공수득 (가브리엘)

전문과외

수학, 영어, 과학, 논술
(수리, 언어, 과학)

고등부·고3등·재수생·중등부

◆ 서울권 대학
◆ 과목별 전공자 수업

1:1 맞춤 방문수업 원장 주영혜(안젤라)

신뢰와 믿음의 서울교육원
T. 256-6300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안심없이 노력합니다”

교구 사회복지법인 안심원
성가어노양원·성가어노신복자센터

임소조 건

성가어노양원(장기요양1,2,3등급/시설급여)
성가어노신복자센터(장기요양1,2,3등급/시설,재가급여)

임소 성가어노 양원 054)976-8122
문의 성가어노신복자센터 054)976-8123
<http://www.sug.or.kr>